

지원 분야  교환학생  중·장기 어학연수  단기 어학연수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캐나다	파견 학교	UNBC	
	파견 시기	2018.09.02.~2018.12.15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		
		Practical English Speaking	발표 수업을 진행해 발음, 문법 교정		
		Practical English Writing	Business letter 작성 등 영어로 다양하게 작문 수업 진행		
		Practical English Reading	책을 이용한 영어 독해수업		
		Practical English Listening	책을 이용한 영어 듣기 수업		
		Practical English Grammar	책을 이용한 영어 문법 수업		
Overseas Cultural Exchange	시청 답사, Toastmaster 모임 참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2018년 9월 2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새벽 6시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오후 3시 25분 벤쿠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옆자리에 앉은 위를 가는 사람과 친해지며 약 10시간동안의 인내 끝에 벤쿠버 공항에 도착한 후, 프린스조지 행 비행기로 환승하여 장장 16시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공항에 도착하니 홈스테이 호스트가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흔들며 나를 반겨주었다. 그대로 따라가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이렇게 나의 프린스조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프린스조지는 생각한 것 보다 시골이었고 작은 마을이었다.



## 체험후기

### <학교생활>

내가 3개월 동안 다니게 된 학교는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UNBC)로 작은 캠퍼스지만 구조물이 아름다워 눈이 쌓인 캠퍼스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학교가 산 속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프린스조지가 한눈에 다 들어왔다. 첫 날에는 가볍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본 후, 가이드를 따라 캠퍼스 투어를 했다.

### -수업

첫 날에는 가볍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레벨 테스트를 본 후, 가이드를 따라 캠퍼스 투어를 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반 배정 결과가 나왔고, 3개의 레벨 중 높은 편인 40반에 배정되었다. 나를 포함한 조선대학교 학생 3명과 한경대학교 학생 2명, 중국인과 인도인 각각 한 명씩 총 7명의 학생들과 같은 반이 되었다. 대부분이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선생님이 원어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한국어로 대화해 영어회화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은 없어 아쉬웠다. 수업 과목은 총 5개로 Speaking, Reading, listening, Writing, Grammar으로 이루어져있고 모든 수업을 리처드 선생님이 다 하셨다. 원래는 과목마다 담당 선생님이 다르다고 했는데 사람이 부족하여 혼자 모든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셨다. Speaking 수업에서는 주제를 정해 피피티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을 녹음하여 발음과 문법을 잡아주었으며, 또 job interview를 실제 구직활동처럼 진행해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business letter도 작성해보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Toastmaster라는 스피킹 모임을 4차례 참관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준비한 발표를 하고 서로 그 발표를 평가해주어 조언해주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또 시청에서 프린스조지 시장과 의원이 모이는 회의에도 참석하여 방청하는 등 쉽게 하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하고 왔다.

이외에도 우리는 다섯 개의 정기 수업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UNBC의 전공 수업을 한 가지 골라 청강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Foundations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이라는 실습수업을 신청했고, 학교 뒤에 있는 산을 오르며 숲 속에서 자유롭게 앉아 자연환경을 주제로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정말 캐나다에 왔다는 것을 실감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되도록 모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동아리도 가입했으며, 캠퍼스 건물 옆 Gym도 등록했다. 축구장, 농구장, 스쿼시장, 배드민턴장도 다 있는 그렇게 커다란 체육관은 난생 처음 봤다.

**<홈스테이>**

내 홈스테이 집은 Pinewood Ave에 있었는데 학교에 가려면 집 앞 정류장에서 5번 버스를 탄 후, University at Foothills 정류장에서 15번 버스로 환승해야했다. 35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다른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홈스테이 집에 비해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다.



[홈스테이 집과 내 방, 세탁실]

**체험후기**

운이 좋게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집과 호스트에게 배정되어 3개월 동안의 홈스테이 생활을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었다. 호스트 Jackie, 아들 Luck, 고양이 한 마리와 지내게 되었다. 모두 쾌활하고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말 수가 적은 나에게는 최고의 호스트였으며,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영어회화 기회를 집에서 많은 대화를 하며 실력을 늘린 것 같다.

다른 조선대 언니들 홈스테이에서는 샤워는 하루에 한 번, 10분 이하로 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Jackie는 나에게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며 한국인들은 샤워를 자주 하는 것 같다고 이해해주셨다. 또 이 집의 지하실 전체는 오로지 나만의 공간이었다. 개인 화장실과 냉장고가 있다는 것은 다른 홈스테이 학생들에게 자랑거리였다.

평일 아침과 점심은 내가 해결해야 했고 같이 밥은 먹는 건 주로 저녁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녁 식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는 호스트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 놓아야 했다. 나는 Jackie의 음식이 맛있고 돈도 절약할 겸 외식은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캐나다 음식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아직도 맛이 잊혀 지지 않은 음식은 덤플링 스투, 버터 감자 요리, 비어 캔 치킨이 있는데 한번은 저녁 식사로 치즈를 두른 나초를 주셔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밥 대신 간식을 먹은 기분이었다. 여기는 또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음식물이던 뭐든 한꺼번에 다 버려서 그것도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 음식을 보고 매일 사진을 찍었더니 luke가 왜 계속 사진을 찍는 건지 의아해해서 그 후로는 사진을 별로 찍지 못했다. 그 부분이 살짝 후회된다. 그냥 찍을걸...



[덤플링 스투]



[문제의 나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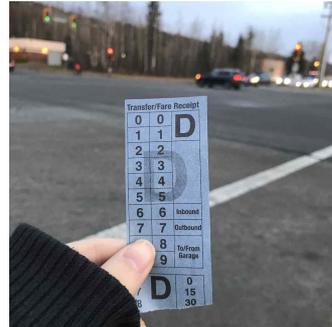
<생활 꿀팁>

-버스

집과 학교 모두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 없었지만, 데이터가 제일 필요했던 순간은 길을 찾을 때였다. 구글맵이 없었더라면 프린스조지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프린스조지는 버스 정류장이 작은 표지판 하나로 표시되어 있었다. 전혀 정류장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 표지판 하나로 정류장이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학교 학생증만 버스 기사님께 보여주면 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버스비는 절감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버스에 올라 다른 버스로 환승하겠다고 말하면 환승표를 주었고, 버스 기사님이 환승 버스 기사님께 전화해 곧 사람이 환승 할 예정이니 출발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전해주셨다. 작은 시골 마을이라 가능한 것 같았다. 또 버스를 오르고 내릴 때 항상 'Hello', 'Thank you' 하며 내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도 항상 인사하며 버스를 이용하니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



[버스 환승표]

- 체크카드

한국에서 받은 용돈을 넣을 곳도 필요하고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TD은행을 방문해 체크카드를 만들었다. 방문 첫 날에는 예약만 할 수 있고 다음 날에는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권을 챙기지 않아서 다음 예약 날짜를 잡고, 다음 예약 날에는 여권 사본이라 어쩔 수 없이 다음 예약 날짜를 다시 잡고 왔다. 여권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다시 느꼈다.

-한인마트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어렵게 찾은 한인마트였다.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렀던 것 같다. 떡볶이 떡, 김치, 리챔, 사골육수 등등 없는 게 없었고 없으면 주문 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햇반과 옥수수차 티백을 주문했다. 한인마트 덕분에 떡볶이, 김치전, 떡국 등 한국요리를 많이 해 먹을 수 있어서 향수병이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소주도 파는 곳을 찾았는데 한인마트에서는 팔지 않았고, Pine Centre Mall 옆에 있는 Liquor Store에서 팔았다. 신분증이 필수여서 없으면 들어가지 못했다.

-놀거리

Downtown에 가면 영화관, 볼링장, 마트 등등 생각보다 놀만 한 곳이 많았다. 주로 Hudson's Bay, 중고마트 Value Village에서 쇼핑하고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이스하키와 축구 경기도 관전했다.

-야생 동물

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교 캠퍼스 안에서 곰이나 무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곰을 보면 절대 달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진지하게 하는 선생님을 보며 장난인 줄 알고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실제로 나를 제외하고 다른 한경대학교 사람들은 곰을 목격했고 나는 운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스 엉덩이만 멀리서 본 적이 있었다. 프린스조지가 진짜 산 속에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주변 맛 집>

워낙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Downtown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경험해보는 것이 언니들과 나의 암묵적 목표였다. 실제로 거의 모든 곳을 다 가보았고 그 중에서 정착한 음식점과 카페들을 소개할 생각이다.

•Black Clover

여기는 술집인데 안주가 한국인 입맛에 아주 적격이었다. 안주와 술 모두 종류가 다양했으며 그중에서도 항상 주문했던 것은 고구마튀김인 Yam Fries, BBQ Chicken, Pot Roast였다. 이 중에서 Yam Fries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함도 모자라 양도 푸짐해서 단골 안주 1순위였다.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Yam Fries]



[Pot Roast]

이 곳 말고도 햄버거, 양파튀김 맛 집 Red Robin, 중국식 뷔페 China Cup을 자주 갔다. 또 Pine centre Mall 안에서 파는 캐나다 전통 음식 Poutine이 먹어본 푸틴 중에 제일 맛있었다.

• Magel' s cafe

Downtown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버블 티 카페이다. 디저트로 는 와플 위에 아이스크림도 얹어 주기 때문에 단 것이 먹고 싶을 때 많이 갔던 것 같다.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캐나다에는 Timholtens 팀홀튼이 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학교에 갈 때 학교에 있는 팀홀튼에서 도넛을 주로 사먹었으며 도넛이 종류도 많고 맛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문화체험>

Thanks Giving Day, Candy Cane Lane 등 많은 문화체험을 했지만 그 중 한 가지 뽑자면 단연코 할로윈을 체험한 것이다. 이 곳 프린스조지 사람들은 할로윈에 상당히 진심이었고, 그 영향으로 우리도 한 달 전부터 Value Village에 가서 할로윈 코스튬을 골랐다. 다시는 할로윈은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아서 할로윈 파티 티켓을 두 곳이나 구매해 두 번 다 참여했고, Luke가 집집마다 돌며 Trick or treat하는 걸 구경했다. 영화에서만 보던 걸 두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의 감격스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나도 코스튬 입고 Luke와 같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것이다. 11살인 Luke와 키도 비슷해서 가면만 쓴다면 아무도 대학생인건 눈치 못 챘을 텐데 아쉬웠다. 구경하다가 추워서 혼자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다 돌고 온 Luke가 산더미만한 양의 초콜릿을 들고 왔다. 2차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도 호박 조각도 내 집 앞에 전시해두고 코스튬 입고 분장도 해서 파티를 즐기고 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내 인생 첫 할로윈은 성공적이었다. 행복했다.

체험후기



프린스조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버스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 나에게 통일은 될 거 같은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정치에 관한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영어사전을 이용하며 대답을 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줘서 아쉬웠다. 하지만 4개월 후 한국 가기 며칠 전 다시 그 친구를 만났고 나에게 영어실력이 전보다 많이 늘은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프린스조지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기만 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좋았고, 그들에게 서슴없이 대답하는 내가 낯설었다. 4개월이라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시간동안 나는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가벼운 마음으로 온 캐나다 어학연수가 이제는 내가 힘들 때마다 기억해내 버티게 되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 기회가 또 온다면 놀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경험이 되었다.